

방수시트 수요대체 “제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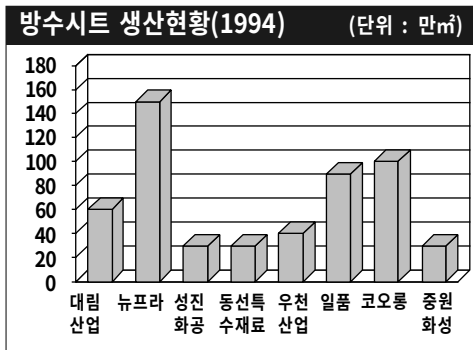
정부, 기준마련 시급 … 무질서·난립으로 혼미

최근 환경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과 시공성면에서 획기적인 수요대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던 광폭 방수시트 시장이 정부 관련부서의 무관심과 기존시장의 무질서로 발전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93년 방수시트 총 수요는 1.5mm기준 매립장 용도로 200만㎡, 터널·지하철용으로 200만㎡, 저수지·골프장용으로 100만㎡ 등 모두 500만㎡, 레진기준 400여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은 93년9월 6.5m광폭시트 생산에 참여한 대림산업이 60만㎡를 비롯, 뉴프라 150만㎡, 성진화공 30만㎡, 동선특수재료 30만㎡, 우천산업 40만㎡, 일품 90만㎡, 중원화성 30만㎡, 코오롱 100만㎡ 등 모두 500여만㎡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입물량은 20만㎡, 수출은 20만 ~ 30만㎡로 수요시장의 대부분이 국내 물량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요시장의 95% 이상이 아직까지 2m와 4.5m의 기존 방수시트로 사용하고 있으며, 겨우 5%만이 6m이상의 광폭시트를 사용하는 등 설비후 안정성 제고 및 공사의 신속성, 사용자재 절감 효과가 우수한 광폭 방수시트 시장이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기존 시트 생산기업들이 마케팅력을 발휘, 지난 87년 이후 꾸준한 시방작업을 해왔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조달청의 품셈에도 기준이 4.5 m시트로 돼 있어 6m광폭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급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6m광폭

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오인되고 있는 것도 수요 대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공자원부·환경처 등 관련부서가 방수시트 시장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광폭 시트의 필요성마저 퇴색되는 등 환경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정부정책상 뒷전에 밀려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6m이상의 광폭 방수시트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대림산업을 비롯, 고려화학, 일신화학, 성진화공 등으로 이미 특정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아니며, 우천산업과 중원화성도 93년 관급 시설의 하자 보수와 관련한 자금 미비로 부도 처리되는 등 정부의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영세기업이 난립하는 무질서한 시장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욱이 전체 방수시트 시장만 보더라도 대림산업의 생산능력이 전체 수요량을 훨씬 초과하는 600만㎡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대부분 300만㎡를 넘고 있어 20% 정도의 수요 성장이 이뤄진 다 하더라도 5배이상 생산능력 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현실적인 정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과잉경쟁으로 인한 영세기업 도산은 물론, 시설결함의 우려가 시장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수시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가 시책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